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학교 위치와 시설을 생각 보다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큰 마트, 카페, 마사지숍 그리고 식당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쉬엄쉬엄 나가서 장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만 나가면 시내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숙소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조용하고 학생들과 몇몇 투숙객들만 이용해서 좋았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았지만, 점점 맛있어져서 학교 식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수영장도 생각보다 크고 쓰는 사람이 없어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해주시는 빨래와 청소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크게 토익 스피킹, 단어, 대화, 문법으로 나뉘져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마다 수업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교과서에 집중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두 수업방식 모두 좋았습니다. 그룹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질문을 물어보시고 각자의 답을 듣고 선생님의 생각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대일 수업에서는 필리핀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과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p>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제 한일과 오늘 수업 끝나고 할 일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인과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산과 수영장을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모두 좋아서 재미있게 즐겼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겨울에 가서 필리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았고, 비도 많이 안 와서 모든 할 활동 할 때 좋았다. 오후 1~3시는 많이 더웠지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했고 저녁시간이 되면 선선해서 나가놀이 좋았다. 너무 많이 덥지 않아서 다행이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녁 늦게 돌아다녀도 치안 걱정이 없었다. 친구랑 둘이서 숙소 근처에 걸어서 나가도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골목 깊숙이 들어갈 때는 낮에 돌아다니거나 많은 사람들과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이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시설은 만족스러웠다. 기숙사에 문제가 생기면 프런트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하지만 가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고 방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불편했다.</p>
	<p>학교식당 (V)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과 점심은 주로 식당에서 이용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저녁을 나가서 먹었지만 남은 2주는 거의 저녁도 학교식당에서 먹고 밖에 나갔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중식 그리고 가끔 필리핀 음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찜지만 점점 입에 맞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과일이 나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이 맛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시내교통 관련</p> <p>시내에 나갈 때는 선생님과 프론트에 말씀 드리면 FB와 택시를 불러 주셔서 편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갈 때도 택시 정류장에 가면 바로 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60만원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밥, 군것질	30만원	한끼에 약 7천원
여가(마사지, 네일)	10만원	마사지 한번에 약 9천원
기념품	10만원	
생필품	10만원	
합계	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수업이 어렵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을 따라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고 피곤하다. 필리핀 음식은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향신료에 예민한 사람을 잘 못 먹기도 한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리핀은 동전과 지폐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출국 전 화폐단위와 종류를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살이 찌 수 있다. 식당에서 주는 물은 수돗물 맛이 난다. 되도록이면 음료수를 주문해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출국하기 전, 지난 학기에 필리핀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필리핀에 갔다. 처음 도착했을 때 필리핀은 파란 맑은 하늘과 뜨거운 날씨로 나를 맞이 해주었다. 처음 본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숙소에서 룸메이트를 만나고, 학교 소개를 듣고, 레벨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그룹을 배정받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내고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고 수업에도 적응을 하고 선생님과 친해진 뒤 필리핀 어학연수 신청한 나를 칭찬했다. 외국인과의 영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나에게 첫 모든 수업은 어색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잘했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고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들과 장난도 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많이 친해지고 4주 동안 정도 들었다. 솔직하게 4주 동안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나는 4주 동안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 두려움을 버렸고, 일상적인 대화를 간단한 농담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 만족스럽다.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 선생님들이 조언해주신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거 할 것이다. 선생님이 남겨준 마지막 코멘트에 단어 사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길게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쓰여있었다. 그래서 나는 단어 공부에 집중하고, 팟송을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필리핀에서 4주는 꿈같이 너무 좋았다. 이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주저 없이 신청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필리핀에 가서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다같이 수빅 해변가에 가서 노을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수빅 노을은 언제봐도 항상 예쁘다.



주말 액티비티로 요트 투어를 갔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다. 다 같이 밥을 먹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니 정말 좋았다.



우리 그룹을 담당하시는 3명의 선생님과 수업이 끝나고 다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 수업이 외에 선생님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었다. 한국음식을 소개해주고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여 밥은 우리가 사고 선생님들이 맛있는 한국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수업이 외에 선생님들과 놀러나와 더 재미있었고 좋았다.



4 주동안 같이 mmc 비디오 내용을 구성하고 동영상을 찍고 밤세서 편집한 우리 동영상 상을 두개나 받았다. 선생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도 같이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인 것 같다. 더운 날씨에 다같이 옥상에 올라가 동영상을 찍고, 열심히 편집을 한 우리조에게 고맙다. 이 사진은 수상하고 우리 그룹 다같이 찍은 사진이다.



매주 금요일은 Fun Friday라고 주마다 정해진 콘셉트에 따라 옷을 입고 수업을 하는 날이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의 콘셉트는 파자마였다. 다 같이 파자마를 입고 수업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한 부탁은 모두 들어주셨다. 벌써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마지막 날에 찍은 이사진은, 우리가 다 같이 첫날에 갔던 수빅베이에 가서 찍은 사진이다. 친구랑 햄버거를 사서 바다까지 걸어와 노을을 보면 햄버거를 먹었다.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좋았다.

4주동안 있었던 일을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노을을 보니 필리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소중한 것 같았다.